

이스라엘, 레바논 침공 확대...美-이란 종전협상 재부리나

베이루트 공습 본격화 타진하며 남부 전략 요충지 점령 협상판 엮을 악재...美, 이스라엘·레바논 새 휴전협상 추진

최근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침공 확대가 현재 미국과 이란이 진행중인 종전 양해각서(MOU) 협상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MOU 초안에는 헤즈볼라가 활동하는 레바논을 비롯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를 상대로 공세를 강화하라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지난달 25일 지시에 따라 기존 통제선인 이른바 '엘라라인'을 넘어서 최근 작전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인구 밀집지인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대한 공습을 3주만에 재개한 데 이어 29일에는 양국 국경(이른바 '블루라인')에서 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리타니강을 넘었다.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헤즈볼라의 핵심 거점 인 나바티에가 한눈에 보이는 전략적 요충지 '보포르 성'(아랍어명 '칼라이트 알샤키프')을 점령하고, 리타니강보다 약 10km 북쪽에 있는 자흐라니강 방향으로 진격중이다. 이스라엘은 1982년부터 2000년까지 보포르 성을 점령했을 때 헤즈볼라의 거센 저항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를 겪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협정을 체결해 전투 중단과 헤즈볼라 무장해제를 추진해달라고 요구해왔으나, 레바논 남부에서 정부군의 힘이 약해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공격을 막기는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레바논에서는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의 전투가 재개된 3월2일 이후 3천412명이 숨지고 1만200명이 부상했다. 이런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계속된다면 미국과 이란 사이의 협상은 결실을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과 이란이 추진중인 휴전 협상 초안에는 이란 국도는 물론이고, 헤즈볼라가 활동하는 레바논 남부를 포함해 중동 지역 모든 전선에서 헤즈볼라 등 이란의 대리세력과 이스라엘 등 미국

동맹국들이 교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란 정권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레바논 내 시아파 무슬림들의 삶의 터전이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교적·정치적 동맹세력이며 대리자인 헤즈볼라를 버린다는 국내외의 비난을 받아가며 미국과 종전협상에 합의하기는 어렵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확대에 대해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부 장관은 "용인할 수 없는 영토 점령"이라고 규정하고 6월1일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요구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양측에 휴전 자제와 공격 중단을 촉구하면서 새로운 휴전안을 제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미국은 첫 단계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공격을 중단하고 그 대가로 이스라엘이 베이루트에서 확전을 자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약시오스는 한 소식 기자의 X 계정으로 루비오 장관, 아운 대통령, 네타냐후 총리의 전화통화가 최근 4시간 이내에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의 영자신문 '예루살렘포스트'에 따르면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들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대한 공습을 확대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미국 측에 최근 요청했다. 이 신문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국-이란 종전협상, 이스라엘-레바논 협상이 모두 진전이 없는 만큼 이스라엘 측이 미국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며 이같이 요청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콩고민주공화국 이투리 주 부니아에 위치한 북음주의 의료센터에서 의료진들이 개인 보호 장비(PPE)를 착용하고 있다. /REUTERS-연합뉴스

에볼라 확산세...민주콩고 등 아프리카 감염 의심 1천100명

브라질·이탈리아서 의심사례 3건 보고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의 감염 의심 사례가 1천100건에 달하며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발병한 에볼라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승인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에볼라 분기부조 바이러스다. 감염된 동물을 섭취하거나 감염된 사람이나 동물과 접촉하면 감염된다. 에볼라 는 발열·근육통·구토·설사 등을 유발하는 치명적 감염병이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AFP와 로이터 등의 신들에 따르면 에볼라 발병의 원인이인 민주콩

고에서만 282명이 에볼라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고, 42명이 숨졌다. 장 카세야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사무총장은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쓴 기고에서 지난달 30일 기준 1천100명이 에볼라 감염이 우려돼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에볼라 감염으로 숨진 사람도 246명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카세야 사무총장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외부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하려고 하면 안 된다면서 "우리는 전염병 속도에 맞춰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콩고를 포함해 인접 국가인 우간다와 남

수단 등 3개국은 최근 3억1천900만달러(약 4천800억원) 규모의 에볼라 대응 계획을 마련했다. 지난달 15일 민주콩고 동부 이투리주에서 발병이 선언된 에볼라 감염 의심 사례가 브라질과 이탈리아에서도 보고됐다. 브라질에서는 민주콩고와 우간다를 방문하고 귀국한 2명이 에볼라 감염이 의심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도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1명이 에볼라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병원에 입원했다. 에볼라 분기부조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5건의 회복 사례가 나왔다. /연합뉴스

시진핑 방북하나...“김일성광장에 구조물 설치중”

2024년 푸틴 방북 전에도 유사 작업 평양 공항은 항공기 수용 공간 마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설이 나오는 가운데 평양 김일성 광장에 사열대로 추정되는 대형 구조물이 설치 중인 장면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1일 보도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평양에서 촬영한 동영상에 보면 김일성 광장 앞쪽에 대형 구조물을 둘러싼 가림막과 그 옆에 이동식 크레인 이 자리 잡은 모습이 확인된다. NK뉴스는 가림막 설치 위치를 미국 민간위성업체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으로 확인했다며 지난 2024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 당시 임시로 설치된 석조 사열대가 있던 곳과 동일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 가림막은 같은달 24일 위성사진에서는 보이지 않은 만큼 이때 이후 설치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NK뉴스는 사열대 설치 작업이 푸틴 대통령 방북 때는 방북 8일 전부터 시작됐으며 지난 3월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벨라루스 방북 때는 방북 3일 전부터 설치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의 방북은 푸틴 대통령 방북 행사 규모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 주석이 이달 초 평양에 도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평양 국제공항 주변 위성 사진에는 대형 항공기 여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모습이 잡혔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29일 사이 고려항공 소속 항공기 8대는 공항 터미널 북쪽 주차장에서 활주로 건너편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다. NK뉴스는 2024년 푸틴 대통령 도착 9-10일 전에도 러시아 측 항공기 수용을 위해 공항에서 유사한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시사주간 타임은 지난달 20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이 조만간 북한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연합뉴스

미얀마 반군 지역서 광산 발파용 폭약 터져...“최소 50명 사망”

미얀마의 소수민족 반군이 장악한 지역에서 보관 중이던 광산 발파 작업용 폭약이 폭발해 50명 넘게 숨졌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AP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30분께 미얀마 북부 산주 남감타운(행정구역)의 카웅타 마을에 있는 한 건물에서 폭발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50명이 숨지

고 수십명이 다쳤다고 로이터와 영국 B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한 구조대원은 AP에 어린이 6명을 포함해 시신 46구가 수습됐으며 부상자 7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말했다. 또 폭발 충격으로 인근 주택 100여채가 파손되고 큰 불도 났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